

# 1930년대 소설의 신여성 재현과 신경증\*

—『여성』에 실린 『과실』, 『세기의 화문』,  
『슬픈 해결』을 중심으로

신정숙\*\*

1. 들어가는 말
2. 신여성의 탄생과 신경증의 발견
3. 1930년대 소설의 신여성 재현과 신경증
  - 3-1. 남성적 시각(욕망)의 내면화와 내적 분열: 『과실』(1937)
  - 3-2. ‘인테리젠스’의 추구하고 육체에 대한 혐오(공포): 『세기의 화문』(1938)
  - 3-3. 성적 충족의 ‘지연’과 ‘팜프파탈’로의 변모: 『슬픈 해결』(1938~39)
4. 결론

## 국문요약

이 논문은 1930년대 대표적인 여성 종합잡지 『여성』(1936~1940)에 실린 세 소설 『과실(果實)』(1937), 『세기(世紀)의 화문(花紋)』(1938), 『슬픈 해결』(1938~39)에 형상화 된 신여성의 다양한 신경증이 신여성의 육체적 욕망에 대한 자각과 이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욕망, 그리고 기존의 전통적/봉건적 사회의 견고한 사회적 틀과 이러한 틀에 평화롭게 안주하고자 하는 욕망이 상호 대립, 길항하는 과정에서 발생하게 되었다는 사

---

\* 이 논문은 대중서사학회가 주최한 2013년 가을 학술대회 〈한국대중서사의 사랑과 성(性), 그리고 감정의 흐름〉에서 발표한 원고를 수정·보완한 것이다. 이 논문의 수정·보완은 당시 토론을 맡아주셨던 경희대 김은하 교수님의 논의에 힘입은 바가 크다. 이 지면을 통해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 연세대 국어국문학과 강사

실을 고찰한 것이다.

이 소설들은 남성 지식인/작가의 위계적인 시각에서 1930년대 중후반 신여성들의 성·연애·결혼에 대한 인식/사상과 실제 그들의 삶의 괴리(분리)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신경증'의 양상을 정확하게 포착하고 있다. 이러한 신경증은 신여성 자체가 지닌 한계에서 발생한 것이기보다는 그녀들이 속해 있었던 시공간의 특수성에서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즉 그녀들의 신경증은 1930년대 중후반이라는 조선의 시공간 속에 견고하게 자리 잡고 있었던 봉건성과 새롭게 대두된 근대성의 대립과 혼종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그들이 보여주는 이중성과 분열적 양상들은 근본적으로 전통사회의 인습을 변혁시키고자 하는 욕망에서 추동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전통적인 여성들과는 변별되는 신여성에게 가해지는 사회적인 억압의 강도를 보여주는 척도이자, 신여성들이 지닌 혁신성(근대성)을 입증해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전문 남성작가의 소설 『과실』(1937), 『세기의 화문』(1938), 『슬픈 해결』(1938~39)은 이러한 신여성의 특수성이 선명하게 형상화 된 대표적인 소설이다. 『과실』은 신여성의 남성적 시선(욕망)의 내면화와 주체성의 상실에서 발생하는 신경증(성/육체에 대한 혐오)이 역설적으로 여성의 성적 욕망에 대한 자각과 이를 충족시키기 위한 강렬한 열망에서 기인된 것이라는 사실이 나타난 소설이다. 『세기의 화문』은 신여성에게 나타나는 금욕주의/지성만능주의라는 신경증이 남성 중심적인 봉건사회에서 충족되기 어려운 여성의 성적 욕망의 대체물이라는 사실이 나타난 소설이다. 그리고 『슬픈 해결』은 신여성의 '팜프파탈'적 면모가 성적 충족의 지연/불가능성에서 발생하는 신경증의 한 양상이라는 사실이 나타난 작품이다.

이처럼 위의 소설들에 형상화 된 신여성들의 이중적 상황과 이로부터

발생하는 다양한 신경증의 양상들은 1930년대 중후반 신여성들이 성·연애·결혼의 영역에서 주체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사실에서 발생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그녀들이 지닌 근대사적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그녀들의 다양한 신경증은 자유로운 성·연애·결혼에 대한 열망과 이를 억압하는 사회구조의 대립, 충돌에 의해서 발생한다는 측면에서, 신여성의 혁신성(근대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즉 1930년대 중후반 신여성이 보여주는 신경증은 그들이 지닌 근대사적 의의와 한계를 동시에 보여주는 핵심적인 지표라고 볼 수 있다. (주제어 : 신여성, 신경증, 근대성, 주체성, 성(性), 연애, 결혼, 이중성)

## 1. 들어가는 말

지금까지 '신여성'에 관련된 연구는 주로 1920~30년대 대표 여성잡지 『여자계』(1917~1927), 『신여자』(1920), 『부인』(1922~1923), 『신여성』(1923~1934), 『여성조선』(1930~1932), 『신가정』(1933~1936), 『여성』(1936~1940)을 분석대상으로 하여 진행되어 왔다. 이는 이러한 여성잡지들이 신여성 담론을 본격적으로 생산하는 장으로써 기능했기 때문이다.<sup>1)</sup> 이러한 연구를 통해서, 당시 유행과도 같았던 신여성 현상이 그 자체 근대적 산물이며, 식민지 조선에서 양산된 근대성의 핵심적인 지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찰했다. 특히 그들이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적극적으로 제기했었던 자유로운 성·연애·결혼과 관련된 수많은 논설·주장들은 근본

1) 식민지 시기 신여성에 관한 연구는 주로 1920년대에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한 1세대 신여성의 근대성을 규명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 왔다. 이러한 연구경향으로 인해서, 1930 중후반~1940년대 신여성에 관한 연구는 거의 전무한 상황이다.

적으로 여성이 하나의 독립된 개인으로서 자신의 주체성을 확보해 가는 문제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밝혔다. 또한 이러한 담론들의 생산과 유행은 당시 19세기 말~20세기 초의 서구사회와 일본, 인도, 중국 등의 비서구 사회에서 광범위하게 나타났던 세계적 현상과 궤를 함께 하는 것이며, 도시화, 산업화, 대중매체 등의 등장을 배경으로 하여 중고등 교육을 받은 초기 세대를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제기되었다는 사실을 밝혔다.<sup>2)</sup> 이러한 연구 성과들은 식민지 시기 조선의 사회, 역사적 특수성과 세계사적 보편성에 입각하여 1920~30년대 신여성의 근대적 성격을 고찰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거시적인 연구방식은 사회, 역사적 맥락에서 신여성의 근대사적 위치를 규명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실제 삶을 영위해 나가는 살아있는 한 개의 인간으로서 수반될 수밖에 없는 신여성 자체의 이중성, 즉 구여성과 신여성 사이에 존재하는 ‘중간자’로서 필연적으로 내재할 수밖에 없는 모순과 균열의 지점들을 포착해 내는 것은 불가능하다.

2) 김수진, 『신여성담론 생산의 식민지적 구조와 <<신여성>>』, 『경제와사회』69, 비판사회학회, 2006. 3. 256쪽. 1920~30년대 신여성의 근대성에 대해 고찰한 대표적인 논문과 저서는 다음과 같다.

- \* 김수진, 『신여성, 근대의 과잉 : 식민지 조선의 신여성 담론과 젠더 정치, 1920~1934』, 소명출판, 2009.
- \* 김연숙, 『그녀들의 이야기, 신新여성』, 역락, 2011.
- \* 노지승, 『여성지 독자와 서사 읽기의 즐거움』, 『현대소설연구』42, 한국현대소설학회, 2009.
- \* 박용옥, 『1920년대 신여성 연구』, 『여성연구논총』2, 성신여대 한국여성연구소, 2001. 2.
- \* 우정미, 『근대 여성지식인이 추구한 여성상』, 『일본문화연구』41, 동아시아일본학회, 2012. 1.
- \* 이덕화, 『여성문학에 나타난 근대체험과 타자의식』, 예림기획, 2005.
- \* 이정희, 『근대 여성지 속의 자기서사 연구』, 『현대소설연구』19, 한국현대소설학회, 2003.
- \* 최혜실, 『신여성들은 무엇을 꿈꾸었는가』, 생각의 나무, 2000.

왜냐하면 신여성은 견고한 전통적/봉건적인 사회구조에서 새롭게 탄생한 존재라는 점에서, 그들이 제기하는 이상적인 성·연애·결혼에 대한 논설·사상과 그들이 실제 받을 딛고 있는 전통사회에서의 삶의 영역은 상호 대립, 충돌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들이 빈번하게 보여주는 진보적인 논설·주장과 실제 전통적, 보수적인 삶의 방식 간에 엄연하게 존재하는 괴리(분리)는 이러한 신여성이 처한 역사적 특수성에서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신여성이 지닌 근대사적 의의와 한계를 고찰하기 위해서는 보다 미시적인 접근방식, 즉 정신분석학적인 연구방식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정신분석학적인 연구방식은 근대사상으로 인해 새롭게 자각된 신여성의 성적 욕망과 이를 억제하는 사회적 기제와의 상호 길항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의 틀을 제공함으로써, 각기 이질적인 경향을 보여주는 신여성들의 행동양상에 내포되어 있는 함의를 규명해내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논문에서는 신여성이 지닌 근대사적 의의와 한계를 보다 입체적으로 규명하기 위해서 1930년대 대표적인 여성 종합잡지 『여성』(1936~1940)에 수록된 소설 『과실(果實)』(조풍연, 1937), 『세기(世紀)의 화문(花紋)』(김남천, 1938), 『슬픈 해결』(방인근, 1938~39)을 주요 분석 대상으로 삼는다. 이러한 연구대상을 정한 것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이유 때문이다. 먼저 1930년대에 주목한 이유는 1920년대 신여성의 자유로운 성·연애·결혼에 관한 논설·사상들이 대체로 단순한 논설·사상에 그친 반면, 1930년대는 이러한 논설·사상들이 실제 삶의 영역으로 적극적으로 수용되는 시기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회, 역사적 상황은 신여성의 논설·사상의 영역과 실제 삶의 영역 간의 실질적인 대립, 충돌을 불러일으켰던 가장 핵심적인 요인으로 볼 수 있다.

둘째, 1930년대 여성잡지 중에서 『여성』(1936~1940)<sup>3)</sup>에 주목한 이유

는 유사한 시기에 발행되었던 『신가정』(1933~1936)에 비해서 보다 여성의 성·연애·결혼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발행되었고, 발간 시기가 성·연애·결혼에 대한 담론들이 점차 일제에 의해 국가적으로 통제되는 시기였기 때문이다. 이처럼 1930년대 중후반의 일제에 의한 국가적 통제는 신여성의 내적 분열을 일으키는 또 하나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1930년대 이후 이미 자리 잡기 시작한 자유로운 성·연애·결혼에 대한 신여성들의 욕망은 국가적인 외적 억압에 의해서 쉽게 통제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1930년대 중후반은 신여성의 분열적 상황을 보다 효과적으로 포착할 수 있는 시기로 볼 수 있다.

셋째, 『여성』(1936~40)에 실린 소설 『과실(果實)』(조풍연, 1937), 『세기(世紀)의 화문(花紋)』(김남천, 1938), 『슬픈 해결』(방인근, 1938~39)을 주요 연구대상으로 삼은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이다. 먼저 소설이라는 장르는 논설·사상에 비해서 당시 1930년대 중후반의 신여성의 실제 삶의 양태를 전체적으로 형상화 하는 데 있어서 보다 효과적인 글쓰기 방식이라는 점과 위의 세 작품들이 당시 신여성이 처한 이중적 상황과 이로부터 발생하는 그녀들의 인식/사상의 분열 상태를 보다 정확하게 포착해 내었다는 사실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 작품들은 각기 다른 성향의 신여성의 전형을 보여주는데, 이들은 표면적으로 자유연애(성), 연애결혼에 대한 철저한 신념을 주창하지만,

3) 『여성』은 잡지 제목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여성들을 위한 종합교양잡지의 성격을 띠고 있었다. 이 잡지는 문학(시, 수필, 소설), 평론, 논설, 실화/수기, 가정탐방기 등 다양한 글쓰기가 수록되어 있었다. 이러한 다양한 글쓰기는 주로 여성의 성·연애·결혼의 문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고, 신여성들에게 내재되어 있었던 전통적인 순결 이데올로기와 현모양처 이데올로기에 대한 옹호와 거부감이 혼재되어 나타난다. 이러한 양상은 당시 1930년대 신여성이 처해 있던 이중적 상황이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근본적으로 성적 억압에서 기인된 '신경증'을 보여준다는 측면에서 공통점을 갖고 있다. 『과실(果實)』은 신여성의 선천적인 육체적 결함이 신경증을 불러일으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양상이 나타나고, 『세기(世紀)의 화문(花紋)』은 신여성의 지성만능주의를 숭배하는 금욕적 생활방식이 신경증의 원인이 되는 양상이 나타나며, 『슬픈 해결』은 성적 충족의 '지연'에서 기인된 신여성의 '팜므파탈(femme fatale)'적 면모가 신경증의 한 발현태라는 사실이 나타난다.

그러므로 이 논문에서는 1930년대 대표적인 여성 종합잡지 『여성』(1936~1940)에 실린 세 소설 『과실(果實)』(1937), 『세기(世紀)의 화문(花紋)』(1938), 『슬픈 해결』(1938~39)에 나타나는 신여성의 다양한 신경증이 여성의 육체적 욕망에 대한 자각과 이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욕망의 확대, 그리고 기존의 전통적/봉건적 사회의 견고한 사회적 틀과 이러한 틀에 평화롭게 안주하고자 하는 욕망이 상호 대립, 길항하는 과정에서 발생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고찰할 것이다. 이는 신여성들의 성·사랑·연애에 대한 이론·사상의 영역과 실제 삶의 영역 간에 엄연하게 존재하고 있는 균열의 지점을 찾아내는 작업이자, 신여성들이 놓여 있는 좌표를 새롭게 위치 지우는 작업이기도 하다. 또한 지금까지 1920~30년대 신여성의 성·연애·결혼의 문제에 관한 정신분석학적인 연구가 전무하다는 측면에서, 이 논문은 1930년대 중후반의 신여성이 지닌 근대적 의의와 한계를 규명할 수 있는 새로운 접근방식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 2. 신여성의 탄생과 신경증의 발견

1920년대에 신여성이 본격적으로 등장한 이후, 이들은 주로 잡지, 신

문 등의 대중매체의 논설, 기사, 그리고 강연 등을 통해서 봉건적인 억압으로부터 여성의 해방을 설파하게 된다. 이후 1930년대에 이르면, 신여성들이 여성해방과 관련하여 특히 주목했던 문제는 성·연애·결혼이었다. 대중매체의 지면을 통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던 연애사건, 즉 나혜석과 최린의 연애사건, 음악인 윤심덕과 작가 김우진 사건, 홍옥희와 김용주의 정사(情死)사건 등에 대한 반복적인 기사화는 일반 대중들의 관심과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기도 했지만, 신여성 자신의 관심과 대리만족, 그리고 자유연애 담론의 재생산 문제와도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었다. 왜냐하면 이러한 연애사건들은 신여성들이 추구하는 낭만적 사랑의 요소와 감성(격정)을 자극하는 드라마틱한 요소가 적절히 조합되어 있었고, 봉건사회의 억압적인 도덕과 윤리를 뛰어넘고자 하는 혁신성(근대성)을 내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즉 이 연애사건들은 구여성과 변별되는 신여성의 특수성을 표상하는 기표로서 기능하고 있었던 것이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이러한 기표들의 사회적 기능과는 별개로, 신여성들이 성·연애·결혼과 관련된 진보적 논설·사상과 실제 삶의 방식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균열(분열)의 양상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이는 근본적으로 1930년대 중후반의 신여성들이 근대적인 고등교육을 통해 진보적인(서구적인) 연애관·결혼관으로 무장하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미 가부장적인 전통사회의 질서가 깊이 내면화된 여성들이었다는 사실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조선의 제1세대 대표적인 신여성들이었던 나혜석, 김명순, 김일엽이 정조의 상실과 추문, 그리고 반복되는 결혼과 이혼과정에서 사회적으로 몰락해 가는 과정을 누구보다 가까이서 지켜 본 이들이었다는 사실과도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다.



이처럼 당시 신여성들이 처해 있었던 이중적 상황은 『여성』의 창간호부터 폐간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글을 통해서 끊임없이 드러난다. 이 잡지는 자유연애, 결혼, 직업에 대한 진보적인 논설 및 기사도 수록하고 있지만, 자유연애에 대한 경계와 기존의 전통적인 결혼관의 미덕을 옹호하는 신여성들의 수기, 실화, 가정 탐방기 등을 다수 수록하고 있다. 김공주의 「남성!」<sup>4)</sup>과 손금숙의 「연애는 인생의 고배」<sup>5)</sup>는 자유연애의 위험성을 경고한 대표적인 글이며, 노천명의 시 「여인」<sup>6)</sup>, 허영숙의 「나의 자서전」<sup>7)</sup>, 고영옥의 「〈입선실화〉 때리면 때릴수록 정성을 베풀 것이」<sup>8)</sup>, 원순갑의 「마음의 보수」<sup>9)</sup>는 모두 전통적인 가부장적 질서에 대한 순응·옹호의 의식이 드러난 대표적인 글로 볼 수 있다.

흥미로운 점은 춘원 이광수의 아내로서, 그리고 사회의 여성 지식인으로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었던 허영숙, 그리고 대표적인 여성 시인 노천명 역시 전통적인 현모양처의 이데올로기를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입장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허영숙은 「나의 자서전」에서, “춘원하고 결혼 생활하는 동안 그 언제나 안 그랬으면 지금도 춘원이 쓰고 남는 것이 있으며 그것으로 세간사리를 합니다. 우유 같은 것도 그가 자시다 남기면 애들을 노나주고 다 자시면 말고 그러지요. 옷도 그랬습니다. 춘원을 위하여 쓰고 남는 여유가 있으면 옷가지도 해입고 없으면 말고”라고 고백하였고, 노천명은 시 「여인」에서 “빨래해서 손질하곤 이어 또 꿰(?)매는 일 어린 것과 그이를 위하는 덴 힘드는 줄 모르오”라고 노래함으로써, 전통적인 현모양처의 미덕을 찬양한다.

4) 『여성』 제2권 제1호, 1937. 1.

5) 『여성』 제3권 제12호, 1938. 12.

6) 『여성』 제2권 8호, 1937. 8.

7) 『여성』 제4권 제2호, 1939. 2.

8) 『여성』 제5권 제6호, 1940. 6.

9) 『여성』 제4권 제2호, 1939. 2.

허영숙은 여자의학전문학교를 졸업한 후, 1930년대 대표적인 여성잡지 『신가정(新家庭)』(1933~1936)과 『여성』(1936~1940)의 주요 집필진으로 활동하고 있었고, 노천명은 이화여전 영문과를 졸업한 후, 『조선중앙일보』, 『조선일보』, 『매일신보』의 기사를 지냈으며, 시작품의 발표 및 강연활동, 그리고 『여성』(1936~1940)의 편집진의 역할을 병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이들의 이력을 고려했을 때, 그들은 당시 신여성 중의 신여성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그녀들은 현실의 삶 속에서는 그들에게 붙여진 ‘신여성’이라는 호칭이 무색해질 만큼 전통적인 여성으로의 삶을 살고 있었고, 더욱이 스스로 자신의 전통적/봉건적 삶의 방식을 합리화시키는 이중적인 면모를 보여주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상(이념)과 실제 삶의 괴리(분리/분열)는 어디에서 기인된 것일까? 이는 신여성들이 비록 성·연애·결혼에 대한 진보적인 사상(이념)을 지니고 있었을지라도, 이를 실제 현실에서 실현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다는 사실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신여성들의 계급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부유한 상류층이다. 즉 신여성들은 사회의 다양한 혜택을 향유할 수 있었던 기득권 계층에 속해 있었던 것이다. 이들은 전문고등교육의 기회는 물론이고, 졸업 후에는 직업의 유무에 상관없이 비슷한 상류층의 남성들과의 결혼을 통해서 기존의 상류층으로서의 생활을 지속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있었다.<sup>10)</sup> 이러한 상황에서, 자유로운 성·연애를 통한 정조의 상실과 추문, 반복적인 결

10) 『여성』에 실린 다양한 글 중에서, 연재물 「가정태평기(家庭太平記)」는 1930년대 중후반의 신여성들이 갖고 있었던 성·연애에 대한 인식을 알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 이 기사들은 대부분 지식인/유명인 남편과 신여성, 그리고 아이들로 구성된 이상적인 핵가족을 보여준다. 이는 신여성들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성·연애의 목표가 상류층 지식인/유명인 남성과의 결혼을 통해 ‘스위트 홈’을 이루는 것이라는 사실을 의미한다.

혼/이혼은 그들의 선택받은 삶을 위협할 수 있는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었다. 이는 제1세대 대표적인 신여성이었던 나혜석, 김명순, 김일엽의 삶을 통해서 명확하게 드러난다. 나혜석은 여류화가이자, 문인으로서 사회적인 인기와 부를 동시에 지니고 있었지만, 최린과의 연애사건으로 인해 남편과 이혼하게 되고, 결국 고독과 가난 속에서 거리에서 사망하게 된다. 김명순은 당시 신여성들 중 자유연애에 의해서 최대의 피해를 입었던 인물로 볼 수 있다. 그녀는 일본 유학 중 데이트 강간으로 인해 정조를 상실한 후, 평생 동안 조선의 지식인 남성들과 언론으로부터 '탕녀'라는 비난을 받았던 인물이다. 그녀는 이러한 사회적 폭력을 견딜 수 없게 되자, 1939년 일본으로 건너가게 되는데, 이후 아오야마(青山) 정신병원에서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게 된다.<sup>11)</sup> 그리고 김일엽은 세력 있는 양반가에서 태어나 이화학당을 졸업한 후, 일본 동경영화학교(東京英和學校)에서 유학했던 신여성이다. 그러나 그녀는 당시 남성 지식인이었던 이노익, 오다 세이조(太田清藏), 임노월, 국기열, 백성욱, 하윤실 등과의 결혼/이혼, 동거, 그리고 사생아의 출산과 같은 험난한 인생역정을 거친 후, 끝내 세속을 떠나 불교에 귀의하게 된다.<sup>12)</sup> 이러한 그녀들의 전락과정은 당시 신여성들에게 있어서 자유로운 성·연애가 분명히 '유혹적인' 것이었지만, 동시에 너무나 '치명적인' 독이 될

11) 김명순은 평양의 부호였던 아버지와 기생 출신의 첩이었던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다. 비록 그녀가 첩의 딸이었을지라도, 만약 일본 육군 소위 이용준으로부터 데이트 강간을 당하지 않았었다면, 당시 조선의 지식인이자 신여성으로서 평탄한 삶을 살 수 있었을 것이다.(김명순의 전락과정과 데이트 강간과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김경애의 『성폭력 피해자/생존자로서의 근대 최초 여성작가 김명순』(『여성과 역사』14, 한국여성사학회, 2011. 6.)을 참조할 것.

12) 김일엽의 삶과 문학사상의 연관성, 그리고 그녀의 불교 선택의 의미에 대해서는 방민호의 『김일엽 문학의 사상적 변모와 불교 선택의 의미』(『한국현대문학연구』20, 한국현대문학회, 2006. 12.)를 참조할 것.

수도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해 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신여성은 근대사상(이념)의 수용을 통해서 자유로운 성·연애에 대한 욕망은 배가되었지만, 기존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봉건적인 사회질서에 순응해야만 하는 역설적인 상황에 놓여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역설적 상황으로 인해서, 1930년대 중후반의 신여성들은 하나의 경향으로 일반화 시킬 수 없는 모순적인 양상을 보여주게 되었던 것이다. 즉 신여성들은 기존의 도덕과 윤리에 충실한 금욕적인 모습을 보이거나, 지성주의에 집착하거나, 그 반대로 과도하게 성에 집착하는 등, 다양한 행동양상을 보여주게 된다.<sup>13)</sup> 금욕주의와 지성주의는 인간 본연의 성적 욕망의 억압에 기반한 것이며, 과도한 성적 갈망은 진정한 성적 욕망의 해소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발생한다는 측면에서, 이러한 다양한 행동양상들은 근본적으로 성적 억압에서 발생하는 성적 욕망의 ‘대체물’, 또는 ‘전사물(轉寫物)’로 볼 수 있다. 즉 성적 충족의 지연, 또는 불가능성에서 발생하는 일종의 ‘신경증’인 것이다.<sup>14)</sup>

13) 백철은 『신정조론』에서 당시 조선이 연애·결혼관에 있어서 극도의 혼란한 상태에 처해 있다고 진단한다. 그는 여성의 처녀성을 신비화 하는 전통적인 가치관도 문제이지만, 처녀성의 가치를 무시하고, 향락을 일삼는 행위도 문제라고 비판한다. 이러한 주장을 통해서, 당시 신여성들의 성에 대한 태도가 극단적으로 양분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백철, 『신정조론』, 『여성』제4권 3호, 1939. 3.)

14) 정신분석학자 프로이트에 따르면, 전통적인 도덕과 윤리의 근간을 이루는 성적 본능과 육체에 대한 혐오, 지성만능주의, 그리고 이와는 반대되는 성에 대한 과도한 집착은 모두 성적 욕망이 충족될 수 없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일종의 ‘신경증’의 양상들이다. 즉 ‘신경증’은 인간이 자연적인 욕망을 억제하고, 문명적 요구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이며, ‘성 본능에서 힘을 얻은 충동들의 대체물’이다. 그는 ‘신경증’을 본래적 (신경증 Neurose)과 <정신 신경증 Psychoneurose>으로 분류하는데, 이 두 ‘신경증’은 모두 성적 억압이 발병의 근원적인 요인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고 있다. <본래적 신경증>은 흔히 <신경 쇠약 Neurasthenie>으로 분류되는데, 신체 기능에 장애(증세)가 나타나든 정신 기능에 장애가 나타나든 모두 중독성을 갖고 있으며, 유전적 요인이 없더라도 성생활이 저해 받으면 유발될 수 있는 것으로 파악한다. <정신 신경증> 역시 성생활을 저해, 억압, 왜곡하는 모든 요소들로 인해 발생하는데, 이

그러므로 그녀들이 보여주는 강박증에 가까운 성/육체에 대한 혐오, 지성만능주의, 금욕주의, 성에 대한 집착 등과 같은 '신경증'은 근본적으로 자신의 내밀한 성적 욕망에 대한 자각과 성적 충족에 대한 열망에 의해서 추동된다는 측면에서, 근대 이후 조선에서의 신여성의 탄생은 '신경증'을 발견하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 3. 1930년대 소설의 신여성 재현과 신경증

『여성』(1936~1940)에 실린 소설 「과실」(조풍연, 1937), 「세기의 화문」(김남천, 1938), 「슬픈 해결」(방인근, 1938~39)은 모두 전문 남성작가의 작품들이다. 이 작품들은 기본적으로 당시 사회를 주도했던 남성 지식인/작가의 위계적 시각에서 1930년대 중후반 신여성들의 성·연애·결혼에 대한 이중적(분열적) 인식과 이로 인해 발생하게 되는 다양한 '신경증'의 양상들을 정확하게 포착하고 있다. 흥미로운 점은 신여성에 대한 남성 작가의 위계적 시각 속에는 당시 남성이 지배하던 공적 공간에서, 혹은 남녀 간의 사적 공간(연애·성)에서 당당하게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신여성들에 대한 불안과 공포/혐오, 그리고 어쩔 수 없는 매혹의 감정들이 투영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남성 지식인의 양가적 감정은 당시 신여성들이 지닌 혁신성(근대성)과 이로부터 발생하게 된 남성들의 불안한 사회적 위치를 증명해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의 대표적인 증상은 히스테리, 강박증이다.(프로이트, 김정일 역, 『성욕에 관한 세 편의 에세이』, 열린책들, 2004, 54~56쪽. 지그문트 프로이트, 김석희 역, 『문명 속의 불안』, 열린책들, 2004, 14~15쪽.)

이 소설들에 등장하는 신여성은 모두 근대적인 교육을 통해서 진보적인 연애·성·결혼에 대한 이론/사상을 습득한 인물들이다. 그러나 그녀들은 현실적 삶 속에서 여전히 견고한 남성 중심적인 지배질서에 지배되는 양상을 보여준다. 이러한 이론/사상과 현실적 삶의 괴리(분리)는 그녀들의 신경증을 불러일으키는 근본적인 요인으로 볼 수 있다.

『과실』(1937)은 신여성이 전통적인 남성적 시각(욕망)을 내면화함에 의해서 자신의 성적 욕망의 주체가 되지 못하고, 자유로운 성적 욕망의 추구하고 성적 억압 사이에서 균열하는 양상이 나타난 소설이다. 이 소설에서 신여성의 신경증은 남녀 간의 성적(육체적) 결합에 대한 비정상적인 공포/혐오로 나타난다. 『세기의 화문』(1938)은 신여성의 진보적인 성·연애에 대한 이론/사상과는 달리 현실적인 삶에서 보여주는 과도한 금욕주의/지성만능주의가 성적 억압에서 기인된 신경증의 한 양상이라는 사실이 드러난 소설이다. 『슬픈 해결』(방인근, 1938~39)은 신여성의 ‘팜프파탈(femme fatale)’적 면모가 궁극적으로 성의 충족의 ‘자연’에서 발생하는 신경증이라는 사실이 나타난 작품이다. 여기서 신여성이 ‘팜프파탈’로 변모해 가는 과정은 기본적으로 성적 억압으로부터 벗어나, 성적 충족의 단계로 나아가고자 하는 열망에 의해서 추동된다는 점에서, 신여성이 주체성을 획득해 가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 3-1. 남성적 시각(욕망)의 내면화와 내적 분열: 『과실』(1937)

『과실(果實)』(1937)은 여성의 타고난 신체적 결합이 정상적인 성생활을 저해하고, 이로 인해 성적 욕망과 성적 혐오 사이에서 내적 분열(신경증)을 일으키는 양상이 나타난 소설이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여성의 정상적인 성생활을 저해하는 궁극적인 요인이 자신의 타고난 신체적 결

함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성이 남성의 여성에 대한 시선(욕망)을 내면화함으로써 자신의 성적 욕망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점에서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 소설은 기본적으로 남성 지식인/작가가 위계적인 시각에서 신여성의 삶의 양상을 형상화 하고 있다. 이 소설에 등장하는 주요인물들인 학예부 기자 현두, 여학생 비다와 자원은 당시 남성 지식인과 신여성을 각각 상징한다. 이 중 남자 주인공 현두의 시선은 남성 지식인의 시각을 대변하는데, 그의 시선을 통해서 1930년대 중후반 신여성의 성·연애·결혼에 대한 논설·사상과 실제 삶의 간극에서 발생하는 균열의 양상을 정확하게 포착해 내고 있다. 한편 자원과 비다는 전혀 다른 유형의 신여성을 대표하는 인물이다. 이들은 같은 여전에 재학 중인 여학생이지만, 그들이 보여주는 성·연애·결혼에 대한 인식과 태도는 완전히 상반된다. 자원은 근대적인 고등교육을 받고 있는 여학생이지만, 과거 전통적인 여성과 변별점을 찾을 수 없는 보수적, 수동적인 여성이다. 그녀의 경우, 전통적인 여성으로서의 면모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근대적인 교육을 받은 여학생이라는 사실과는 상관없이 전통적인 여성상의 연장선상에 서 있는 인물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그녀는 전통 사회에서 근대사회로 이행하는 과도기에 위치해 있는 신여성들이 보여주는 어떠한 분열의 양상도 보여주지 않는다.

1930년대 중후반 신여성의 성·연애에 대한 분열적 인식/태도를 고찰하기 위해서 주목해야 할 인물은 비다라고 할 수 있다. 그녀가 '교인가정'에서 태어났고, '평양에서 성장했으며, '여전'에 진학한 인물이라는 소설적 설정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그녀는 종교적으로는 '기독교', 지역으로는 '평양, 그리고 '전문고등교육'을 통해 새롭게 성장하기 시작한 신여성을 상징하는 인물이다. 이러한 상징성에 걸맞게, 그녀는 성·연애에

대해 적극적, 개방적인 태도를 보여준다.

“……. 그러는 중에 의면과 비다에게 두가지로 가는 주의를 의식하고 그는 일종의 수치심이 일었다. 명주저고리와 스콧취양복의 팔이 접촉할적마다 의복을 무시하고 두사람의 체온이 서로 저항하였다. 허나 그러한 감각적 욕망은 곧 이성을 불러내고 현두는 설명을하는중에 비다의 표정을 훑쳐보았다. 역시 비다의 얼굴에는 예상한바와 같은 일종의 퇴폐적인 음란한 그림자를 발견하고 그는 의식적으로 화면에 향하여 주의를 보냈다. 음란하다는 말에 관해서는 일즉히 비다와실없는 이야기를 하든끝에 여자란 모양을 몹시 내는 젊은사람에게 성병의 공포를 느낀다고 한 비다의 말에 그런 생각을하는것은 이미음란한 표상이 아니냐 고 웃으며 놀려 준일이 있는데 이 세상의 여자를 두가지주형속에 관박어 생각하는 현두에게는 이러한 여학생의향낙적기교는 추리를 지난 육감적효능이 있음을 깨달았다. 성숙하여진 열매에 일어나는 탐욕이 불현듯 솟은것도 이때였다.…… ”<sup>15)</sup>

위의 인용문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현두가 그녀와의 육체적 접촉과정에서 “일종의 수치심”을 느끼는 것과는 달리, 그녀는 자신의 내면 깊숙이 존재하고 있는 “퇴폐적인 음란한 그림자”를 얼굴에 숨김없이 드러내기도 하며, 정숙한 여학생으로서는 도저히 행할 수 없는 “향낙적 기교”를 통해서 현두에게 “육감적 효능”을 불러일으키는 등, 여학생 보다는 “요부”적인 면모를 보여준다. 그러나 그녀는 현두와의 지적인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문학론을 남매처럼 쏘다 놓”는 “천사와 같이 다정”<sup>16)</sup>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는 그녀가 당시 전문고등교육을 받은 지식인이라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비다의 성에 대한 자유분방한 태도와 지적인 총명함은 현두로 하여금 그녀를 “천사와 같은 악마”라고 생각하게 하는데, 이러한 그녀의 이중성은 그로 하여금 그녀에

15) 조풍연, 『과실』, 『여성』(제1회), 제2권 8호, 1937. 8, 97쪽. 밑줄 표시는 인용자 표기. 이후 생략.

16) 조풍연, 앞의 글, 96쪽.



게 더욱 매력을 느끼게 되는 핵심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소설적 설정은 통해서,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당시 남성들은 신여성의 자유로운 성·연애의 추구를 ‘악마적인’ 행위로 평가했으며, 그녀들의 지적 추구를 ‘천사적인’ 행위로 평가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평가는 여성의 성적 쾌락의 추구는 ‘악(惡)’이며, 지적 추구는 ‘선(善)’이라는 인식/사상, 즉 여성의 금욕을 강요하는 남성 중심적 인식/사상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남성들의 인식/사상이 이중적이라는 사실이다. 그들은 신여성의 성적 쾌락의 추구를 분명히 ‘악’으로 규정하면서도, 그녀들의 ‘악마적’ 행동(자유로운 성적 추구)에 대해 강렬한 ‘매혹’/‘유혹’을 느낀다는 사실이다. 이 점은 당시 지식인 남성들이 신여성들의 개방적이고, 진보적인 성·연애의 풍속을 환영하면서도, 이를 부정적으로 바라보았던 모순적 인식과 일치한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비록 비다가 표면적으로 성·연애에 대한 개방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있었을지라도, 여전히 순결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비다의 이중적 면모는 그녀의 이전 연애 상대자로서 일찍이 버림받았던 조영호의 고백을 통해서 드러난다.

“f……, 요지경같이 현황한 아지못할 정체, 이것이 말하자면 비다의 정체라고 나 할까. ……〈중략〉 …, 자네에게 오해를 사는것은 나의 가장 두려운것이므로 용기를 내어 말하지만, 사실인즉, 비다는 남이 알아서 아니될 육체의 비밀이 있네. 얼른 알기 어려운 일이나, 비다의 왼편 팔이 바른편 팔보다 길다는것일세. 이런 일이 현대의 의학상으로 있을일인지 모쨌겠네만, 곳곳치 세워보면 이것은 현저한 모양일세. 하긴 아무도 비다를 곳곳치 세워본 사람은 없지만, 비다는 결혼이란 육체를 별거벗기는것으로만 알고있는까닭에 그것이 결혼을 싫어하는 까닭일세.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은 아조 희소하고 비다 자신도 잊어버리는 수가 많다—아니 잊을 법은 없겠지만 항상자기를 기만하는데서 오죽 가느다란 삶의 희망을 갖인 여잘세. 또하나 비다가 그분명한 행동으로 모든 사람을 속이고히롱하지만,

최후의 경계선을 넘지않는까닭에 내가 아는 한 그여자는 아즉도 순결하네. 그러나 시집을 안가는 여자란 수전로가 사용치않는 금전에 가치를 두는 것과 맞창가지로 언제나 가능의 의식을 기대하고 있으니까 견테어 나가는것인즉 비다와같이 미련과 집착에서 온 절망은 이교적인 운명에 걸고 만다. 그러므로 비다의 반생동안에 몇사람의 젊은 사람이 버림을 받았다 하드라도, 결국 비다자신이 버림을 받은것 일세.”<sup>17)</sup>

그는 현두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비다의 이중적인 행동을 불리일으키는 원인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그녀가 비록 “그 분명한 행동으로 모든 사람을 속이고 히롱하지만, 최후의 경계선을 넘지 않은 까닭에 내가 아는 한 그 여자는 아즉도 순결”하며, 이는 그녀의 육체적 결합, 즉 왼쪽 팔이 바른쪽 팔보다 길다는 사실에서 기인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그녀는 “결혼이란 육체를 별거벗기는 것으로만 알고 있는 까닭에, “결혼을 싫어”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을 통해서, 비다의 내적 분열(신경증)을 불리일으키는 두 가지 중요한 원인을 알 수 있다. 먼저 비다의 신경증은 두 팔의 길이가 다르다는 선천적인 신체적 결함에서 기인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그녀가 신체적 결함으로 인해서 성·연애에 대한 자유로운 태도에도 불구하고, 실제 남성과의 성적 결합에까지 나아가는 데는 실패했다는 것을 의미한다.<sup>18)</sup> 그런데 여성의 신체(육체)적 결함은 남성의 여성에 대한 성적 욕망과 쾌락의 강도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남성의 시선(욕망)에 관련된 문제이지, 그 신체(육체)적 결함을 지닌 여성이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문제와는 전혀 상관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다

17) 조풍연, 『과실』, 『여성』(제2회), 제2권 9호, 1937. 9, 73쪽.

18) 프로이트는 “타고난 체질적 결함이나 발달 장애는 정상적인 성생활을 위협하는데, 이 위협에서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최선의 수단은 바로 성적 만족 자체”라고 주장한다. 또한 “신경증에 걸리기 쉬운 사람일수록 금욕을 참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지그문트 프로이트, 김석희 역, 『문명 속의 불만』, 열린책들, 2004, 22~23쪽.)

가 자신의 신체(육체)적 결합으로 인해서 남성과의 성적 결합의 상황으로부터 끊임없이 도피하고자 하는 것은 남성의 시각(욕망)을 내면화함에 의해서 자신의 성적 욕망의 주체가 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비다의 '신경증'은 근대적인 교육을 통해 수용된 진보적인 성·연애에 대한 사상과는 달리, 그녀의 내면에는 “결혼”=“육체를 벌거벗기는 것”이라는 전통적인 인식이 견고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는 사실에서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결혼”과 “육체를 벌거벗기는 것”을 등가관계로 보는 것은 기본적으로 미혼여성의 성적 쾌락은 죄악이라는 인식과 연결되어 있다. 즉 이는 여성의 성적 쾌락이란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서만이 정당화 될 수 있다는 전통적, 보수적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므로 비다는 개방적인 성·연애에 대한 태도와는 달리 여전히 순결을 지키고자 했던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 소설의 여주인공 비다가 보여주는 신경증은 신여성이 개방적이고, 진보적인 성·연애에 대한 인식/사상과 근대적인 지식을 겸비하고 있었지만, 여전히 전통사회의 남성 중심적인 이데올로기에 구속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 3-2. '인테리젠스'의 추구와 육체에 대한 혐오(공포): 『세기의 화문』(1938)

『세기의 화문』(1938)은 신여성들이 보여주는 과도한 금욕주의/지성만능주의라는 신경증이 신여성들이 남성 중심적인 사회구조 속으로 진입하고자 하는 욕망에서 발생된 '자발적'인 억압의 결과물이지만, 이는 근본적으로 여성에 대한 전통적인 도덕·윤리의 억압에서 기인된 성적 욕망의 대체물이라는 사실이 나타난 소설이다.

이 소설의 서사는 서로 상이한 성격을 지닌 여류 소설가 이경희, 신여

성 하에덕, 그리고 신문기자 송현도, 은행원 박기훈의 연애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이 중 송현도, 하에덕, 박기훈은 자신의 성적 욕망에 충실한 인물들이다. 반면 이경히는 기본적으로 성(육체)적 욕망에 대한 공포를 갖고 있는 금욕적인 인물이다. 이러한 그녀의 금욕적 경향은 그녀가 “높은 교양”, “도고한 심정”, “손끝 하나 건드릴 수 없을 만큼 가장 날카로운 이성(理性)으로 무장”<sup>19)</sup>하고 있었고, 장래의 연애 상대자나 남편이 될 사람의 가장 중요한 자격조건으로서 “인테리젠스”를 주장할 만큼 “지성만능주의(知性萬能主義)”를 숭배하는 인물이라는 사실과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다.

그렇다면 이경히의 지성만능주의는 어디에서 기원된 것일까? 이를 고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그녀가 주장하는 “인테리젠스”가 곧 “크리티시즘”=“강렬한 비판정신”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크리티시즘”=“강렬한 비판정신”은 당시 조선사회가 근대사회로 급격하게 이행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고려해 볼 때, 이는 전통적인 인습과 도덕(윤리)에 의해서 발생하는 폭력에 대한 비판의식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그녀가 추구하는 지성만능주의는 남성 중심적 사회에서 새롭게 여권을 신장하는 문제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녀의 지성만능주의는 근본적으로 전통사회의 인습에서 발생하는 여성의 성적 억압의 대체물로 볼 수 있다.<sup>20)</sup> 이는 그녀가 주장하는 성·연애에 관한 이론/사상과 실제 삶이 극단적으로 양분되어 있는 인물이라는 사실을 통해서 선명하게 드러난다. 그녀는 미혼여성이 성적

19) 김남천, 『세기의 화문』(제3회), 『여성』 제3권 5호, 1938, 5. 23쪽.

20) 프로이트는 성본능이 문명에 대해 갖고 있는 중요성을 승화(Sublimation) 능력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지그문드 프로이트, 김석희 역, 『문명 속의 불만』, 열린책들, 2004, 16쪽.)

인 쾌락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하고, (낭만적 사랑에 기반하고 있다면) 가정이 있는 남성과 신여성의 연애·결혼을 옹호할 정도로 혁신적인 성·연애·결혼에 대한 인식/사상을 지닌 인물이다. 그러나 실제 현실 속의 그녀는 자신의 성(육체)적 욕망조차도 온전히 자각하지 못할 만큼, 유아기적인 상태에 머물러 있는 양상을 보여준다.

이러한 유아기적 상태에서 벗어나게 해 준 인물은 아이러니하게도 그녀가 미래의 결혼 상대자로서 상상했었던 지성적인 인물 송현도가 아니라, 세속적인 인물 박기훈이다. 그녀는 우연히 그의 남성적인 육체를 주시하게 되는 경험을 통해서, 자신 속에 내재해 있었던 성(육체)적 욕망을 자각하게 된다. 이는 육체에 대한 주시가 적어도 인간들 사이에서는 정상적인 성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며, 시각적인 느낌은 리비도의 흥분이 고조되기 위한 핵심적인 통로<sup>21)</sup>로서 기능한다는 사실과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다.

“...〈중략〉... —이경히가 모든것을 일어버리고 마음어데엔가 먼곳으로 쫓아버린뒤에 있는것 고대로를 원통제공하고 그속에 파묻히울수있는 이 순간은 저 건강한 육체의 감상주의가갓어다주는 값비싼 청춘의 한페이지의 알범이아닐거냐.”

별서 박기훈이의인격이라던가 지성이라던가가 문제가될시기는 넘어갔다. 내가 어찌면 이렇게 될것인가 하는 값싼 반상주의(反省主義)도 언권을 상실한 순간이다. 송현도와 하에덕이가 어찌되는것일가 내가왜 그들의행동에서 질투를 느끼는것일가 연애는? 결혼은? 개성은?인격은? 인테리젠스는? 문학은? 크리티스즘은?...모든것이 그의 존재권을 상실하고 언권을 박탈당하는 무서운순간이다.”<sup>22)</sup>

“드디어 이경히는 이 「위대」한 침묵의 용사를 바로본다. 흰근 흰근 노만 젖고 있는 세련된 육체를 멍하니 바라본다. 눈이 가슴을보고 목을보고 얼굴을보고 맥

21) 지르문드 프로이트, 김정일 역, 『성욕에 관한 세 편의 에세이』, 열린책들, 2004, 46-47쪽.

22) 김남천, 「세기의 화문」(제5회), 『여성』 제3권 7호, 1938. 7, 26쪽.

고자를보고 다시 코와눈과입을 한꺼번에 보았을때 이경히는 『오 이것이 박기훈 이』하고 속으로 부르짖는다. 그는 지금 겨우마주앉은사나이가 박기훈인것을 깨닫는것이다. 그리고 간지러운 공포에 떠렀다.”<sup>23)</sup>

위의 인용문은 이경히가 남성으로서 전혀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던 박기훈이라는 인물과 우연히 보트 놀이를 하던 중에, 그의 남성적 육체를 처음으로 인식하게 되면서 겪게 되는 정신적 혼란을 묘사한 부분이다. 그녀는 박기훈의 “건강한 육체”를 주시하는 순간 그동안 그녀가 추구했던 이론적인 “자유연애”, “결혼”, 그리고 “개성”, “인테리젠스”, “문학”, “크리티시즘”의 의미를 완전히 상실하게 된다. 그의 “획근 획근 노만 짓고 있는 세련된 육체를 멍하니 바라”보고, “눈이 가슴을 보고 목을 보고 얼굴을 보고 맥고자를 보고 다시 코와 눈과 입을 한꺼번에 보았을 때”, 비로소 이경히는 자신의 앞에 앉아 있는 사나이가 바로 박기훈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그리고는 이내 “간지러운” 공포에 떨게 된다.

이처럼 이경히가 박기훈이라는 인물을 “인격”, “지성”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의 “육체”를 통해서 자각하게 되는 과정은 눈으로 보고, 만질 수 있는 구체적인 육체에 대한 자각이 없이 진정한 의미에서 인간을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과정이자, 인간의 육체 속에 깃들여 있는 내밀한 성적 욕망을 자각하게 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이로 인해 그녀는 그동안 주창했었던 사상/이론의 존재가치를 박탈당하는 “무서운 순간”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며, “간지러운 공포”에 떨게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그녀의 미숙하지만, 강렬한 성(육체)적 욕망에 대한 자각은 욕망의 충족 단계로 나아가지 못한 채 이전의 억압 상태로 완전히 회귀하게 된다. 이경히는 박기훈의 육체를 통해 성(육체)적 욕망을 자각하게

23) 김남천, 위의 글, 26쪽.

되었지만, 여전히 그녀가 ‘결혼’ 상대자로서 엄두해 두고 있었던 인물은 송현도였다. 그러나 그녀는 하애덕이 송현도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사실을 확인한 순간, 이미 모든 것이 결정되었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하애덕은 “앞으로 얼마 아니하여 새 생명을 이 세상에 내어놓을 하나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권리와 주장을 상실하고, 한보 물러서야 할 경우”<sup>24)</sup>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여기서 ‘어머니’의 권리에 대한 강조는 개인보다는 가족, 사랑보다는 도덕(윤리)을 강조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기존의 전통적인 질서를 옹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태도는 그녀가 개성과 여성의 성적 자유를 주창했었던 기존의 입장과는 완전히 상반된 것으로서, 그녀의 삶이 이론/사상과 현실적 삶의 괴리(분리) 위에 위태롭게 유지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그녀가 송현도와의 결혼을 포기하는 순간 다시금 성적 억압의 상태로 회귀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녀가 송현도가 아닌, 박기훈을 통해서 자신의 강렬한 성(육체)적 욕망을 자각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그녀는 이후 박기훈과의 자유연애를 통해서 성(육체)적 욕망을 충족시킬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갈등 없이 이전의 성적 억압의 상태로 회귀하게 되었던 것은 성(육체)적 쾌락은 결혼을 통해서만이 정당화 될 수 있다는 인식이 내면화 되어 있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그녀는 송현도와의 결혼 가능성이 완전히 삭제되자, 성(육체)적 욕망을 충족시키고자 하는 의지 역시 완전히 소멸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부자연스러운’ 회귀과정에 근본적인 동력을 제공한 것은 잠시 집을 비웠던 ‘아버지’의 귀환이다.

24) 김남천, 『세기의 화문』(제8회), 『여성』 제3권 10호, 1938. 10, 42~43쪽.

“…〈중략〉… 그는 문을 모다 열어젖혔다. 녹음이 옥어진 뜰안을, 그리고 이편 쪽으로 비스듬히 뻗어나간 푸른잔디판을 바라보다가, 그는 문득 박기훈이를 생각했으나, 그의 그림자는 오랫동안 그의눈앞에 남아있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전보가 온걸 올케가 들고 이방으로들어온다. 시골가셨든 아버지가 오후차로 올라 오신다는 전보다.

「언니, 한계 우리 오—게스트라의 소녀나 구경허구 아버지오시는데나 마중갈까.」

그때엔 벌써 처녀다운 명랑한기분이, 찬공기처럼 가슴 가득히 차있을때였다. 그들은 곧 점심을 먹었다.

「유쾌히, 명랑하게,」—

그리고 지적금지(知的矜持)를 싫지않고 꾸준히 지혜의길을 닦아나가자.—

그는 가벼운 양장으로 옷을 가라입으며 이렇게 거듭결심해보고 무척 유쾌해질 수가 있었다.”<sup>25)</sup>

이경히는 하애덕의 임신으로 인한 충격으로 한동안 “고독”과 “적막”을 온몸으로 느끼게 되지만, 이내 “처녀다운 명랑한 기분”을 회복하게 된다. 이것이 가능하도록 했던 것은 그녀로 하여금 처음으로 성(육체)적 욕망을 자각하도록 만들었던 박기훈의 존재가 아니라, ‘아버지’의 귀환이었다. 그녀는 문득 박기훈을 생각하지만, 그의 모습은 이내 사라진다. 그리고 그녀는 시골에 내려갔던 아버지가 오후 차로 올라온다는 전보를 확인하는 순간, 이전의 명랑성을 회복하게 되며, “지적금지(知的矜持)를 싫지 않고 꾸준히 닦아 나가자”라고 마음속으로 거듭 다짐한다. 여기서 ‘아버지’라는 존재는 기존의 전통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가부장적인 질서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그녀가 이전의 금욕주의/지성만능주의의 생활로 회귀하는 과정은 여성에게 금욕의 미덕을 강요하는 억압적인 전통질서로 회귀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이경히라는 인물은 당시 신여성이 전통적인 사회에서 여권

25) 김남천, 위의 글, 43쪽.



을 신장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금욕주의/지성만능주의를 지향하게 되었지만, 이러한 금욕주의/지성만능주의는 아이러니하게도 여성의 성적 욕망을 억압하는 전통적인 가부장적 질서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 3-3. 성적 충족의 '지연'과 '팜프파탈'로의 변모: 『슬픈 해결』(1938~39)

『슬픈 해결』(1938~39)은 치명적인 매력을 지닌 젊은 유부녀(신여성)와 남편의 젊은 제자가 새로운 삶을 위해 만주로 도주하는 내용을 다룬 소설이다. 이러한 자극적인 서사는 당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던 '사랑의 도피·도주' 사건들을 일정하게 문학적으로 반영한 것이지만, 기본적으로 당시 신여성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인식, 즉 신여성은 기존의 도덕(윤리)을 무시한 채, 자유롭게 성을 탐닉하는 퇴폐적인 존재라는 사회적 인식을 반영한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무엇보다 이 소설의 중요성은 이러한 신여성의 '팜프파탈'적인 면모가 성적 충족의 지연에 의해서 발생하게 되는 신경증의 한 양상이라는 사실이 선명하게 나타난다는 점에 있다.

이러한 신여성의 특수성은 여주인공 영혜의 행동양상을 통해서 드러난다. 과거 그녀는 시칫말로 '공부를 한 똑똑한 여성'이었지만 젊은 남자와의 자유연애가 실패한 후, 늙은 재력가의 재혼 상대로 전락하게 된다. 그녀는 성적 만족을 줄 수 없는 늙은 남편과의 결혼 생활을 불행하게 생각하지만, 언제나 상냥한 아내의 역할을 가장함으로써 이 "기형적 결혼"을 유지하고자 노력한다.

“……(중략)……. 영혜는 수단에 십사리 넘어가는 남편을 쳐다보고웃으며

『았다 누굴 주든지간에 차차 형편봐서합시다. 그게 그리 급하오, 위선 우리나라 정답게 삼시다.』하고 아양을 피우며 남편의 가슴에 안긴다. 제호는 그만 녹아버리 고만다. 제호는 영혜의 살지고, 탄력있는 몸에 자기의 주글주글하고 파리한 몸이 다으면 황홀한 쾌감을 느끼며 젊어지는것같았다. 그러나 그반대로 영혜는 송장이 나 해골을 끼고 있는것처럼 불유쾌 하였다.”<sup>26)</sup>

이러한 그녀의 선택은 전통적인 사회에서 ‘비정상’적인 삶의 방식인 ‘이혼녀’로 살아갈 경우, 그녀가 감당해야만 하는 사회적 폭력으로부터 자신을 안전하게 보호하고자 하는 욕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보호본능은 결혼생활을 통해서 충족되지 못한 성적 욕망을 전혀 다른 형태의 신체적 현상으로 전환시키게 하는 근본적인 기제로서 작용한다. 즉 그녀의 충족되지 못한 성적 욕망은 “물질적 욕망”으로 전환되며, 이로 인해 남편의 재산을 빼앗는 데 장애물이 될 수 있는 전처 소생의 명수, 옥순 남매를 지능적으로 학대하는 전형적인 계모의 역할을 하게 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그녀의 과도한 물질욕과 전처 소생의 남매에 대한 잔혹한 폭력성은 억압된 성적 욕망의 대체물, 또는 전사물(傳寫物)로 볼 수 있다.<sup>27)</sup> 즉 억압된 성적 욕망의 자기 가장(假裝)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그녀의 위태로운 자기 가장은 남편의 젊은 제자 이정택이 우연한 기회로 같이 살게 되면서 이내 종결되고, 오히려 과도한 성적 집착으로 다시 한번 전환된다. 이는 그녀가 평범한 유부녀에서 “요부”, “악마”, “아편”, “구미호”<sup>28)</sup>와 같은 “팜프파탈”적 여성으로 변모하게 된다는

26) 방인근, 『슬픈 해결』(제2회), 『여성』, 제3권 12호, 1938. 12. 51쪽.

27) 프로이트에게 있어서, 이러한 성적 욕망의 대체물, 혹은 전사물(傳寫物)은 일종의 “히스테리”이다. 즉 이는 심리적 과정(억압)에 의해서 발생할 수 없었던 것들이 신체적인 현상으로 표현된 것이다. (지그문드 프로이트, 앞의 책, 55~56쪽.)

28) 정택은 영혜가 치명적인 매력으로 사람들을 불행에 빠뜨리는 “요부”, “악마”, “아편”, “구미호”와 같은 존재라고 생각한다.

것을 의미한다. 영혜는 자신이 이미 결혼한 유부녀이며, 정택이 남편의 제자라는 사실에 상관없이 그에게 저돌적으로 접근한다. 또한 자신의 감정 노출에도 전혀 거리낌이 없다.

“『아마 다른 여자에게는 그렇게 무뚝뚝하고 냉정하게 아니 하실걸요— 왜 제게만 그렇게 하세요어쩌든 제눈 앞에 서는사랑을 삼가주세요, 저는 그것을 참아 볼수가 없어요. 죄스러운 말이지마는 정말 숨기잖고 말하자면 질투심이 나서 못 견디겠어요. 저라고 그렇게 무감각하고 고민이없는 동물로 아세요. 너무도 얹잡어 보시고 제맘을 몰라 주시는게 분해요. 정말 분해요』하고 영혜는 눈물까지 먹음는다.

택은 이말을 들을때 무섭게 떨리었다. 택은 영혜의 그동안 이상한 태도를 모른배아니요 알면서도 짐짓 모르는 체하고 경계하고 피하며 그수단으로 애란이나 옥순에게 생각과맘을 옮긴것이다. 그러나 택은 이상하게도 누구보다 영혜의 매력 이강한 것을 느끼며 몸서리를 쳤다.

『죄악이다! 배은망덕이다. 파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택은 영혜가 날마다 안타까운 시선을 던질때마다 그시선이 화살처럼 자기가슴에 박히는 것이었다. 중년부인의 육감적 매력이 택의 몸을 칭칭감는것이 불쾌하면서도 거기에 속박을 받는것을 어쩔수 없었다.”<sup>29)</sup>

위의 인용문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영혜의 유혹적이면서도, 적극적인 태도, 그리고 “중년 부인의 육감적인 매력”은 소극적이면서도 우유부단한 성격을 지닌 정택을 압도하게 된다. 그는 그녀와의 성적 타락이 자신을 돌보아 준 스승에 대한 “죄악”이며, “배은망덕”이고, 곧 자신의 “파멸”이라는 사실을 냉정하게 자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치명적인 매력에 굴복하고 만다. 결국 그는 영혜가 남편의 재산을 빼돌려 만주로 도망가자는 제안을 받아들인다. 그러나 그는 그녀가 가져 온 모든 돈을 그녀 몰래 전처 소생의 명수에게 돌려 준 후, 그녀와 만주행 기차

29) 방인근, 앞의 글, 49쪽.

를 탄다. 그가 만주로 도망가자는 영혜의 제안을 받아들였던 표면적인 이유는 자신과 영혜가 없어진다면, 그 가정의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질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다. 그러나 스스로 인정했듯이, 그가 그녀와 만주로 도주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영혜의 정신을 미워하면서도 그 육체에는 혹하여 어찌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영혜의 “팜프파탈”적 면모와 물질에 대한 과도한 욕망이 정택과 만주행 기차를 타는 순간 완전히 소멸되는 양상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영혜는 만주행 기차가 출발한 후, 정택으로부터 자신이 가져왔던 남편의 돈을 다시 돌려주었다는 말을 듣고는 큰 충격에 빠진다. 그러나 정택이 “우리가 버려서 먹고 살지, 남의 돈을 훔쳐가지고 가서 구구하게 살 것이 뭐” 있으며, 남에게 그런 “적악”을 행한다면, “반듯이 그 양화와 벌을 받을 것이 아니”냐는 훈계를 듣고서<sup>30)</sup>, 이전의 과도한 물질욕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러한 영혜의 급격한 성격적 전환은 표면적으로 정택의 도덕적, 윤리적인 면모에 감동받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영혜의 늙은 남편 역시 오갈 데 없는 옛 제자인 정택을 아무 조건 없이 자신의 집에서 보살피 줄 만큼 어진 인물이었다는 측면에서, 정택의 도덕적, 윤리적 면모로 인해 영혜가 급격한 성격적 전환이 이루어졌다는 설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영혜의 과도한 물질적 욕망은 늙은 남편과의 결혼생활로 인해서 충족될 수 없었던 성적 욕망의 대체물/전사물이었다는 측면에서, 영혜가 물질에 대한 과도한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젊은 남자’ 정택과의 결혼생활을 통해서 성(육체)적 욕망을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30) 방인근, 『슬픈 해결』(제5회), 『여성』, 제4권 3호, 1939. 3, 93쪽.

이처럼 이 소설에 형상화 된 신여성의 ‘팜프파탈’적 면모는 근본적으로 성적 충족의 지연/불가능성에 의해서 발생한다는 측면에서, ‘팜프파탈’적 특성은 성적 억압에서 기인된 신경증의 한 양상으로 볼 수 있다.

#### 4. 결론

1930년대 대표적인 여성 종합잡지 『여성』(1936~1940)에 실린 조풍연의 『과실』(1937), 김남천의 『세기의 화문』(1938), 방인근의 『슬픈 해결』(1938~39)은 1930년대 중후반 신여성들의 성·연애·결혼에 대한 인식/사상과 실제 그들의 삶의 방식의 괴리(분리)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신경증’의 양상들이 형상화 된 작품들이다. 이 소설들은 기본적으로 당시 대중문화를 이끌었던 남성작가이자, 지식인이었던 조풍연, 김남천, 방인근의 전통적인 남성 중심적인 시각이 반영되어 있다. 이러한 그들의 신여성에 대한 위계적인 시각은 사회 전반의 지식인 남성들의 일반적인 시각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그리고 이러한 위계적인 시각에는 기존의 남성 중심적인 사회질서를 위협하는 신여성들에 대한 남성 지식인/작가의 공포/혐오와 매혹이라는 양가적 감정이 투영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남성 중심적인 관점에서 쓰여진 이 작품들은 1930년대 중후반 신여성들의 삶과 사상 간의 균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신경증의 양상을 정확하게 포착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신경증은 엄밀하게 말한다면, 신여성 자체가 지닌 한계에서 발생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그녀들이 속해 있었던 시공간의 특수성에서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즉 1930년대 중후반이라는 조선의 시공간 속에 견고하게 자리 잡고 있었던 봉건성과 새롭게 대두된 근대성의 대립과 혼종은 신여성들이 처한 상황과

결국 동일한 것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사회적 약자인 여성이라는 사실에서 발생하는 억압적 요인들은 그들의 모순과 균열을 심화시키는 핵심적인 요인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그들이 보여주는 이중성과 분열적 양상들은 전통적인 여성들과는 변별되는 신여성에게 가해지는 사회적인 억압의 강도를 보여주는 척도이자, 역으로 신여성들이 지닌 혁신성(근대성)을 입증해 주는 것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그녀들이 보여주는 이중성과 분열적 양상은 근본적으로 전통사회의 인습을 변혁시키고자 하는 욕망에서 추동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전문 남성작가의 소설 『과실』(1937), 『세기의 화문』(1938), 『슬픈 해결』(1938~39)은 이러한 신여성의 특수성이 선명하게 나타난 작품들이다. 『과실』(1937)은 신여성의 남성적 시선(욕망)의 내면화와 주체성의 상실에서 발생하는 신경증(성/육체에 대한 혐오)이 역설적으로 여성의 성적 욕망에 대한 자각과 이를 충족시키기 위한 강렬한 열망을 증명하는 것이라는 사실이 나타난 소설이다. 『세기의 화문』(1938)은 신여성이 보여주는 금욕주의/지성만능주의라는 신경증이 남성 중심적인 봉건사회에서 충족되기 어려운 여성의 성적 욕망의 대체물이라는 사실이 나타난 소설이다. 그러나 신여성의 금욕주의/지성만능주의는 개성의 실현과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의 위치를 확보하고자 하는 욕망과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다는 측면에서, 여성이 주체성을 확립해 가는 과정과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슬픈 해결』(1938~39)은 신여성의 ‘팜프파탈’로의 변모가 성적 충족의 지연에서 발생한다는 사실이 나타난 작품이다. 여기서 ‘팜프파탈’적인 모습은 성적 억압에서 발생하는 ‘비정상적인 신경증으로 볼 수 있지만, 여성이 성적 영역에서 주도권을 확보해 가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측면에서, 구여성과는 변별되는 신여성의 특수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요소로 볼 수 있다.

이처럼 위의 소설들에 형상화 된 신여성들의 이중적 상황과 이로부터 발생하는 다양한 신경증의 양상들은 1930년대 중후반 신여성들이 성·연애·결혼의 영역에서 주체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사실에서 발생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그녀들이 지닌 근대사적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그녀들의 다양한 신경증은 자유로운 성·연애·결혼에 대한 열망과 이를 억압하는 사회구조의 대립, 충돌에 의해서 발생한다는 측면에서, 신여성의 혁신성(근대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즉 1930년대 중후반 신여성이 보여주는 신경증은 그들이 지닌 근대사적 의의와 한계를 동시에 보여주는 핵심적인 지표라고 볼 수 있다.

## 참고문헌

### 1. 1차 자료

『여성』1936. 4. ~ 1940. 12.

나혜석 외, 서경석·우미영 편, 『신여성, 길 위에 서다』, 호미, 2007.

### 2. 논문 및 단행본

김경애, 『작가 김명순의 삶과 기독교 양상』, 『여성과역사』17, 한국여성사학회, 2012. 12.

\_\_\_\_\_, 『성폭력 피해자/생존자로서의 근대 최초 여성작가 김명순』, 『여성과역사』14, 한국여성사학회, 2011. 6.

김수진, 『신여성담론 생산의 식민지적 구조와 <<신여성>>』, 『경제와사회』69, 비판사회학회, 2006. 3. 256쪽.

\_\_\_\_\_, 『신여성, 근대의 과잉: 식민지 조선의 신여성 담론과 젠더정치, 1920~1934』, 소명출판, 2009.

김연숙, 『그녀들의 이야기, 신新여성』, 역락, 2011.

나인호, 『개념사란 무엇인가-역사와 언어의 새로운 만남』, 역사비평사, 2011.

노지승, 『여성지 독자와 서사 읽기의 즐거움-『여성』(1936~1940)을 중심으로』, 『현대소설연구』42, 한국현대소설학회, 2009.

방민호, 『김일엽 문학의 사상적 변모 과정과 불교 선택의 의미』, 『한국현대문학연구』20, 한국현대문학회, 2006. 12. 359쪽.

박용옥, 『1920년대 신여성 연구』, 『여성연구논총』2, 성신여대 한국여성연구소, 2001. 2.

우정미, 『근대 여성지식인이 추구한 여성상』, 『일본문화연구』41, 동아시아일본학회, 2012. 1.

유진월, 『나혜석의 탈주 욕망과 헤테로토피아』, 『인문과학연구』35, 강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2. 12.

이덕화, 『여성문학에 나타난 근대체험과 타자의식』, 예림기획, 2005.

이정희, 『근대 여성지 속의 자기서사 연구-성·사랑·결혼에 관한 여성의 서사를 중심으로』, 『현대소설연구』19, 한국현대소설학회, 2003.

최윤정, 『김명순 문학연구』, 『한국문학이론과 비평』17(3),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13. 9.

지그문트 프로이트, 김석희 역, 『문명 속의 불만』, 열린책들, 2004, 14~23쪽.

프로이트, 김정일 역, 『성욕에 관한 세 편의 에세이』, 열린책들, 2004. 46~56쪽.



## Abstract

### Representation and Neurosis of the Modern Women

Appeared in the 1930s' Novels

- Focusing on "Fruit", "Flower Patterns of the Century" and "Sad Solution"

Published in *Women*

Shin, Jung-Suk (Yonsei University)

This paper studied that the modern women's various neurosis embodied in "Fruit"(1937), "Flower Patterns of the Century"(1938), "Sad Solution"(1938-39), three novels published in a representative women's general magazine *Women*(1936 ~1940) in the 1930s, took place in process of the modern women's awakening of their corporalities, desire to satisfy this, the existing solid social frame of the traditional /feudal society, and mutual confrontation and antagonism of desires to peacefully settle for this frame.

These novels capture exactly awareness/thoughts of sex, love and marriage of the modern women in the mid- and late 1930s and various aspects of 'neurosis' happening in the gap of their real life. These neurosis seem to occur from distinct characteristics of space and time on which they were, rather than occurring from the limitation of the modern women. That is, their neurosis might start from opposition and hybridism between feudalism established firmly in space and time of the Joseon Dynasty, the mid- and late 1930s, and newly risen modernity. Therefore, in that duplicity and disruptive aspects they showed fundamentally were prosecuted by desires to transform the old custom of the traditional society, those may be the scale to show the strength of the social suppression given to the modern women distinguished from the traditional women and something to prove innovation (modernity) of the modern women.

"Fruit"(1937), "Flower Patterns of the Century"(1938) and "Sad Solution"(1938-39) of the professional male writers are the representative novels that these special characteristics of the modern women were clearly embodied. "Fruit" is a novel describing that a divided attitude toward sex taken place from internalization of the

modern women's virile eyes and loss of identity paradoxically began from women's awakening of sexual desire and a strong craving to satisfy this. "Flower Patterns of the Century" is a novel portraying that asceticism/intellectualism of the unmarried women are substitutes of women's sexual desire hard to be satisfied in the male-centric feudal society. And "Sad Solution" is a work depicting that a modern woman's transformation into 'femme fatale' results from the delay of sexual satisfaction.

Like this, in that the modern women's twofold situation represented in the above novels and the aspects of various neurosis coming from this took place from the fact that the modern women of the mid- and late 1930s could not secure their identity in the realms of sex, love and marriage, it may show the modern historic limitation they had. However, from the aspect that their various neurosis were caused by their longing for free sex, love and marriage and conflict/collision of social structure oppressing this, it may express the modern women's innovation(modernity). In other words, neurosis of the modern women in the mid- and late 1930s may be the salient indicator showing the modern historic significance and limitation at the same time.

(Key Words : the modern woman, Neurosis, modernity, identity, sex, love, marriage, duplicity)

투고일 : 2013년 10월 29일 투고

심사일 : 2013년 11월 5-23일 심사

수정보완일 : 2013년 12월 3일 수정제출

게재확정일 : 2013년 12월 10일 게재확정